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조선조 광해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군대를 청한다. 요동 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덕에 살아남아, 건주(建州)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몹시 그리워 목숨을 걸고 탈출해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신사년(辛巳年, 1641) 봄에 청나라가 금주(錦州)를 공격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조선 군대가 금주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하고자 하여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나서고, 여덟 명의 고산대장(高山大將) 또한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금주성을 에워쌌다. 고산대장이 매번 사자(使者)를 조선군 진중(陣中)에 보내니 유림이 사자대접하는 일을 영철에게 맡겼다. 한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 청나라 장수가 영철을 한참 보더니

“내 너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소신(小臣), 장군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청나라 장수가 노하여 말하되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에 영철이 청나라 장수를 자세히 보니 옛적 건주에 있을 때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라나(阿羅那) 장군이였다.

[A] “이놈아 듣거라! 내가 네게 세 번의 큰 은혜를 베풀었노라.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요,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며, 건주의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 셋이니,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그 하나요,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것이 그 둘이요,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친 것이 그 셋이다. 나는 네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천리마 세 필을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도 원통하다. 내 이제 다행히 너를 만났으니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B] “주공(主公),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족(漢族) 놈들이 한 짓이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아홉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제가 건주의 살림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어찌 제 본심이였겠습니까? 몇 년 전 장군의 조카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살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 한 마리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치 못하리라.”

영철이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아라나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하기를

“장군, 이 자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의 몸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니 공께서 호생(好生)하는 덕을 보전하소서.”

그러고는 세남초(細南草) 이백 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이때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다.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여 허락하였다.

(중략)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림이 영철에게 말하되

“네가 금주에서 아라나에게 잡혀갈 때 세남초 이백 근으로 네 몸값

을 치러 너를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니라. 이제 각 진영에서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호조(戶曹)에 바쳐야 하는데 세남초값은 네가 갚도록 하거라.”

영철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軍門)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을 아니 갚지는 못할 것이니라.”

“장군,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장군에게 달렸으니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

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림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려듣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호조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 값을 재촉하였다. 호조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 현령은 영철의 일가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중 한 명이 분개하여 말하되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종군(從軍)하면서 들인 노고(勞苦)와 세운 공(功)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보상조차 주는 일은 없고 도리어 이렇게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나?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나?”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시간을 다 파니 호조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총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하리오.

- 홍세태, 「김영철전(金英哲傳)」 -

01.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림은 아라나를 설득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 ② 영철은 조선군으로 출정하여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 ③ 영철은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림에게 세남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 ④ 영철이 청노새를 유림에게 팔지 않자 유림은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 ⑤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

02.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요동 출병을 요청했을 당시,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출병을 주장했지만, 실제 참전한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명분이 아닌 현실이었다. 작가는 「김영철전」을 통해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런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라를 위해 충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값’까지 값이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군.
- ⑤ 충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015년 7월 인천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 후궁과 벼슬아치들과 내외공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하여,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빌며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양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새로 고쳐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

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중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증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파군망(國破君亡)*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太平)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나.

삼강이 불퇴하니 오륜을 고칠소나.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충신원루(忠臣冤淚) 아니면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이로다.

슬프구나 백성들아,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웅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넣어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이두병을 욕하는 글 몇 구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중략)

이날 밤에 황제가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들어 꿈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기를,

“밤이 지나고 나니 문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옮겨 적어 올립니다.”

황제가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약하고 미미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도다! 만민이 불행하여 황제의 상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늘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임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야!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치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조목 생각하니 한 줄의 글로도 기록하기 어렵도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웅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치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웅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웅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조웅 모자를 잡지 못하면 여러 신하에게 증죄를 내릴 것이니 바빠

[0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웅을 어찌 잡으리오.

-작자 미상, 「조웅전」-

- *국파군망: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심.
-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 *진시황의~주었거늘: 진시황이 죽고 초패왕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책사 범증이 있음에도 황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방이 황제가 된 일을 말함.

0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웅의 안위를 걱정했다.
- ② 조웅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이두병은 조웅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웅을 잡아들이게 했다.

0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로 여러 판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②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웅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④ 조웅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웅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0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웅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웅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지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과 ㉢을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0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0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려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다.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다.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다.

09.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와 같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멧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2012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당시 유행하였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내용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을 의미했는데, ㉠이 시기의 연주는 그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작곡자들은 악곡 속에 그 감정들을 담아내었고, 연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작품이 갖고 있는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즉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당시에 청중들은 연주를 통하여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영향미학이 작품미학으로 전환되면서 바뀌게 된다. 작품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작품미학의 영향에 따라 작곡자들은 음악이 내용을 ㉡지시하거나 표상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음악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절대음악을 탄생시켰다. 작곡자들은 어떤 내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과 반복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곡함으로써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음악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정이 없어지자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려 했고, 이에 따라 연주는 해석으로 이해되었다. 실례로, 당시 베토벤 교향곡의 관현악 편성을 변형시켜 연주했던 바그너나 말러 등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연주자가 해석한 작품을 ㉣감상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구체화된다.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음악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자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한 작품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다른 연주자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연주자는 작품을 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제 연주에서는 작품 자체의 충실한 해석에 의해 음악적 의미를 재구성했던 19세기와는 달리,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연주될 때,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며, 이때 청중에게 감상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11.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동원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⑤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2.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서 강조된 것은?

- ① 연주자의 생각과 주관
- ② 작곡자와 연주자의 분리
- ③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 ④ 형식을 강조한 음악의 아름다움
- ⑤ 작곡자가 의도한 객관적 감정의 전달

13.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에 대한 감상 중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에서 베토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 ② <월광> 소나타를 반복해서 들으니 이 곡이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
-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악곡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 ④ 제목 '월광'처럼 음악을 듣는 동안 달빛 어린 잔잔한 세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 ⑤ 빠르기와 섬여림이 본래 악곡과 달라 베토벤의 음악에서 연주자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어.

14.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가리켜 보임.
- ② ㉣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③ ㉤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④ ㉢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 ⑤ ㉤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

[A] 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과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5. 밑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16.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17. 밑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18.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② ㉡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③ ㉢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④ ㉣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⑤ ㉤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윤 승상의 아들 지경은 사리 분별력과 문장력이 뛰어나 과거에서 장원을 한다. 지경은 사랑하는 사이인 최연화와 혼례를 올리던 중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가 자신이 귀인 박 씨의 딸인 연성 옹주의 남편으로 간택된 사실을 알게 된다. 부마가 된 지경은 옹주를 멀리하고 연화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기를 반복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의 부친인 최 공에게 발각된다.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옹주를 증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옹주를 잘 타이르며, 네 부친과 주상(主上)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옹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르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옹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낸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옹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복성군은 남 험기 심한데 흥명화, 흥상이 박 귀인과 결탁하여 필연 그옥한 흥계를 지을지라, 옹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옹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직(削職)이요, 소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로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 공이 알고 불러 대책하고 옹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옹주 어찌 모르리오. 부마 내당에 들어간 때 옹주 가로되,

“내 비록 웅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이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흥*하였오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오.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완대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이 여김이 심하뇨.”

[A]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내 할 말을 옹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옹주와 화락하리오. 옹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리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로다.”

옹주 웃으며 가로되,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

상명으로 부마의 아내가 되어 나온 지 거년이나, 천대가 태심하여 행로(行路) 보듯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여염 사람이 부부 간에 하사하되 옹주 너무 지극 공경하여 구실 삼아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편치 못하고 꿇어앉으니 이밖에 더 공경하리오.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 아니하실지라. 본대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니, 아내 사랑하는 묘리를 배워다가 가르치소서.”

하고 크게 웃고 소매를 떨치고 나오니, 옹주 종일토록 울더니, 그 후 입궐하여 박 씨더러 일일이 고하며 설워하니, 박 씨 대로하여 상께 이대로 주하여,

“최 씨를 없이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

청하니, 상이 윤지경을 불러 책망하여 가로되,

“네 아내즉 옹주요 정처(正妻)란 것이 유의 중하고, 또 여염 필부 회매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이어늘, 네 최 씨를 퇴채하

였거늘, 퇴혼* 취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감히 교통하여 줄기를 위반하는가. 네 또 빙모*를 간악한 유로 훼방한다 하니, 네 무슨 일로 보았는가. 네 또한 빙자지의 있고 처부모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훼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사죄하여 가로되,
 “하고 이리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신이 외람하오나 소회를 세세히 전달하리이다. 참판 최홍일은 신의 아버 종매부라. 어려서부터 즉장지의와 아버 형제지의로 신이 부형같이 공경하고 홍일이 신을 자식같이 사랑하옵더니, 조강 윤 씨 작고하옵고 후처 이 씨 들어와 생녀하오니, 자못 총혜하고 자색이 빼어나오니, 아버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 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합친을 못 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응주 말기시니, 신이 과연 응주의 딸이 아니온 줄 아오되, 최 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삽고, 응주로 하와 이제까지 참았사오니 부귀빈천이 다르오나, 원역*하옵은 비상지원*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응주를 대접하고 최 씨를 다른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빙채와 교배합환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 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마는, 엄교를 두려워 홍일이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오나, 홍일을 속이고 가만히 가서 만나온 일이 있사오나, 응주 신에게 온 지 겨우 거년에 신정의 뜻을 모르며,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

상이 탄식하여 가로되,
 “네 나이 어리되 소견이 높아 급암*의 직간(直諫)을 가졌도다. 그러나 응주는 내 딸이라, 생심도 박대치 말라.”

-작자 미상, 「윤지경전」-

- *고혹 :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림.
- *황영 : 중국 순제의 두 황비인 아황과 여영.
- *퇴혼 : 정한 혼인을 어느 한 편에서 물림.
- *빙모 : 장모.
- *원역 :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함.
- *비상지원 :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원한.
- *급암 : 황제에게 간(諫)하는 것을 잘했던 중국 전한의 정치가.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응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③ ‘윤 공’은 ‘지경’이 응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④ ‘최 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 ⑤ ‘응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지경전」은 애정 소설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여러 장애와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를 정처(正妻)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처첩(妻妾)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선 중종 때 후궁인 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옥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급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 씨’와 ‘응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처첩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최 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2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응주’는 ‘지경’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응주’는 ‘지경’이 신분의 차이를 들어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응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지경’은 ‘응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⑤ ‘지경’은 ‘응주’가 ‘응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 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귀라 구(求)치 말고 빈천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 백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하오리라

<제1곡>

천심 절벽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단
백구로 버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곡>

㉠ 보리밥 파 생채를 양(量) 맛차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었시니
눈 압해 태공 부운*이 오락가락 하놋다

<제3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두견아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으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 한연*에 날은 초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 고봉*이 갈 바 업서 하놋다

<제5곡>

서산에 해 저 간다 고기 비 씻단 말가
죽간*을 돌너 뉘고 십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 수상 어촌(數三漁村)이 무릉인가 하노라

<제6곡>

-권구, 「병산육곡」-

- *망기 :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잇음.
- *모재 : 따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야림 한연 : 들판 숲 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 안개가 피어오르는.

(나)

집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다. 이 시내는 냉악에서 발원하여 십 리쯤 흘러 이곳 월파진에 이른다. 집 앞에 이르러서 조금 깊어지기는 하지만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이고, 폭은 겨우 한 길 남짓 된다. 시내의 양쪽 언덕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냇물을 뒤덮을 정도이다. 이 시내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냇물은 상쾌함을 풍기고 버드나무 또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마침내 젊은이들과 함께 궁리하여 규모를 정하고 이웃의 친구에게서 시내를 가로지를 만한 상수리나무 두 개를 얻어 오고 젊은이들에게 쓸 만한 나무 수십 개를 베어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긴 나무는 세로로 놓고 짧은 나무는 가로로 놓아 칠푼굴로 단단하게 엮어서 평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시내에 걸쳐 있으므로 '계상(溪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만 그 지세가 낮고 좁아 흰하게 탁 트인 경관이 없어 아쉬

웠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이목(耳目)에서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고혹하고 고요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냉악이 동북쪽으로 높이 치솟아 있으며, 깎아지른 절벽이 천 길 높이로 하늘과 맞닿아 있고, 오래된 소나무와 전나무가 산등성이와 계곡에 우거져 있어, 나의 명상을 일으키고 나의 흥취를 북돋아 준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니**, 여기서야말로 번거로운 일들을 말끔히 잊고 흥겹게 지낼 만하다. 쉬기도 여기서 쉬고 생활도 여기서 하고 책도 여기서 보고 시도 여기서 읊으니, 이곳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 간혹 해가 질 무렵이면 심부름하는 아이가 ㉡ 탁주 한 사발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쭈욱 들이키고 나면 막힌 가슴 속이 절로 트여 몸의 원기가 왕성하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드디어 일어나 망건을 걸쳐 쓰고 옷깃을 느슨히 하고 이리저리 거닐면서 둘러본다. 높은 산은 어찌 저리도 낮으며 먼 하늘은 어찌 저리도 가까운 것일까? 몸은 한 평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정신은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으니, 이 어찌 깊은 운치가 아니겠는가? 때로 나른하고 싫증이 나면 스르르 팔 베고 엎드려 흐르는 냇물을 바라본다. **물고기들이 떼 지어 작은 물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욱 보고 즐길 만하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니, 이것이 계상에서의 즐거움이다.

이 평상은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으로 질박하고 졸렬한 채로 놓아두고 애써 깎고 다듬지 않았기에 나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고, 당우*에 이어져 있지도 않다. 또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냇물 위에 걸쳐 있어 그 아래로는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내가 찾던 진정한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무릇 만물은 원래 붙어 있는 곳이 없을 수 없지만, 붙어 있는 곳에 집착하여 얽매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外物)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私心) 없이 물(物)이 오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천하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없어야 한다.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만나는 바에 따라 마땅하게 잘 처리하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붙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궁하여 뉘우침이 있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장현광, 「계상설」-

*당우 :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22.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번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⑤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2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 '부귀'를 구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망기'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제2곡>에서 '천심 절벽'은 '백구'를 벗으로 삼는 '어조 생애'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 ③ <제4곡>에서 '낙화 광풍'에 의해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우는 '두견'의 처지는 '설워'하는 화자의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제5곡>에서 '저 가막이'가 '쫓'는 것과 '이 가막이'가 '쫓'는 것은 '편편 고통'이 놓인 부정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⑤ <제6곡>에서 '수삼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무릉인가 하노라'로 드러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현광의 호는 '여헌(旅軒)'이다. '여(旅)'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헌(軒)'은 집이라는 뜻이다. '여헌'이란 말에는 사방 모든 것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에게 '여헌'은 일정한 장소와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편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냇물'은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계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계상'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헌'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쓴이가 '한 평상'에서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계상'이 글쓴이에게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냇물' 속에서 '떼 지어' 놓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즐거움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잘 변화'해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 ② ㉠, ㉡은 모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는 소재이다.
- ③ ㉠, ㉡은 모두 강호 공간에서의 자기 절제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④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은 자적하는 삶 속에서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2015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우에 갈매기떼 우짚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속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가는 고향 사람들

남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줌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음도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

*호젓한 : 쓸쓸하고 외로운.

*비오롱 : 바이올린.

(나)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밤 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멎은 날갯죽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 날 뒤울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심청이네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심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꼬들꼬들 졸고 있는 툇마루 끝에
개다리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쏘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뜨고 있다, 다시 눈뜨고 있다.
장승상네 참대밭의 우레 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내 어린 날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발가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나태주, 「등 너머로 흠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상사밭: 품질이 낮은 사밭.

26.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젓한', '서러운'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노출되고 있다.
- ② '한 줄기 황망한 기적'과 '낮은 비오름'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에는 '눈물지'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비애감이 집약되어 있다.
- ④ '언제 꺼질지 모르는 /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통해 '고향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저무는 도시의 옥상'은 화자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케네스 버크는 문학적 소재를 크게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 의미를 지니게 된 소재라면, 후자는 잘 알려진 역사나 고전에서 선택된 소재를 의미한다. (나)는 '대숲바람 소리'를 중심으로 제시된 내적 소재들과 「심청전」에서 가져 온 외적 소재들이 절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어린 시절과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심청'이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품었던 희망이 화자 자신의 어린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아픔 속에도 희망이 존재하며, 상처마저도 그리움과 추억이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 ① 어른이 된 화자가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군.
- ②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 속에 '초록별의 멍든 날갯죽지'와 '눈물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 할 수 있군.
- ③ '심청'이 '심봉사'를 혼자 남겨 두고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의 장면이 외적 소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 ④ 외적 소재와 내적 소재가 접목되면서,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 다시 눈뜨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⑤ 외적 소재를 통해 내적 소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고통마저도 '햇살'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되만해 온 화자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발가벗은 햇살'에 투영되어 있군.

2005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본의 한 완구 회사가 개발한 '바우링걸'은 개 짖는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기계이다. 이런 기계를 제작하려면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동물행동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동물행동학 학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일단 그것을 동물의 의사 표현으로 본다. 물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며 반복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동물들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까?

먼저 시각적인 방법부터 살펴보자. ㉠ 남미의 열대 정글에 서식하는 베짚이는 우리나라의 베짚이와는 달리 머리에 뿔도 나 있고 다리에 무척 날카롭고 큰 가시도 있다. 그리고 포식자가 가까이 가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에게 당당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베짚이는 그런 모습을 취함으로써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또 열대의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 시칠리드는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분 상태에 따라 이 곳에 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색깔이 변한다. 이 부분에 점이 생기면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습이나 색깔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적인 방법도 있다. 까치와 가까운 새인 ㉢ 유럽산 어치는 머리에 있는 깃털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기분이 아주 좋지 않거나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머리털을 가장 높이 세운다고 한다.

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물들도 있다. 소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경보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 북미산 얼룩다람쥐 무리에는 보초를 서는 개체들이 따로 있다. 이들은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발견하면 날카로운 소리로 경보음을 내어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리고 ㉤ 갈고리모양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가 자신의 구역에 침입하면 처음에는 노처럼 생긴 뒷다리로 나뭇잎을 긁어 진동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침입자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입으로 나뭇잎을 긁어 짹 짹 강한 소리를 계속 만들어낸다.

냄새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동물은 먹이가 있는 장소를 알리거나 자신의 영역에 다른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냄새를 이용하기도 한다. 동근꼬리 여우원숭이는 다른 냄새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꼬리를 팔에 비빈 후 흔든다. 그러면 팔에 있는 기관에서 분비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꼬리에 묻어 그 침입자에게 전달된다.

동물들은 색깔이나 소리, 냄새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동물들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혼용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은 양적이지나 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초라하지만 동물행동학의 연구 성과가 폭넓게 쌓이면 현재 개발된 '바우링걸'보다 완벽한 번역기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 위 글에서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행동을 이용하는 방법
- ② 냄새를 이용하는 방법
- ③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
- ④ 보호색을 이용하는 방법
- ⑤ 모습이나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30. 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의사를 번역할 수 있는 기계를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동물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도움이 되었어.
- ③ 동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하기가 쉽다.
- ④ 동물행동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 ⑤ 동물의 의사 표현 수단이 갖는 장단점을 대비하며 서술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기 쉽다.

31. <보기>의 질문에 대한 동물행동학 학자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산길을 걸다가 특이하게 생긴 곤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더니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곤충의 행동도 의사 표현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 ① 상대방에게 물러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지요.
- ②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선, 손을 뻗을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③ 의사 표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무슨 뜻인지는 좀더 연구해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 ④ 의사 표현은 아닐 겁니다. 확실한 건 그 곤충의 신체 구조를 분석해본 후에야 알 수 있지만요.
- ⑤ 의사 표현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들 중에는 그런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없거든요.

32. '의사 표현'과 '의미' 간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사 표현>		<의미>
①	㉠ 뽕과 가시를 과시하며 가만히 있는다.	➔	너, 나 가만히 뉘.
②	㉡ 신체 일부에 점이 나타나 색깔이 변한다.		우울한 기분을 풀어 볼까?
③	㉢ 머리에 있는 깃털을 가장 높이 세운다.		너 까불면 가만 두지 않겠다.
④	㉣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천적이 나타났으니 피해!
⑤	㉤ 나뭇잎을 굵어 짧고 강한 소리를 낸다.		내 영역에서 빨리 나가!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불로초(不老草)를 찾다가 50세에 죽었다는 진시황처럼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인간의 욕망이다. 현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왜 늙게 되는가에 대해 전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노화(老化)의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지만, 크게 '활성산소의 축적'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의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된다.

전자(前者)는 사람의 신체는 일생 동안 많은 유해한 자극들로 인하여 각 장기 및 기능이 약화되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활성산소가 노화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 활성산소란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한 후 영양분을 산화(酸化)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산화력이 매우 큰 산소 이온을 뜻한다. 이 활성산소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체내 세포나 DNA에 손상을 입히고 변이를 일으키면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사람이 들이마시는 산소 가운데 1~4퍼센트 정도가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로 남게 되는데, 한번 손상된 세포 조직 등을 완벽히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화의 정복은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활성산소를 줄이는 체내의 효소에 관계된 비타민 등을 잘 공급하고, 체내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면 활성산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노화의 진행을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물 실험 결과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거나 냉혈동물인 경우 낮은 온도에서 기르면 수명이 훨씬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사람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가 바로 식사를 적게 하는 습관이라는 사실 또한 산소가 노화의 주범으로서, 산소 소비량을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론은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여 마치 시계가 작동하듯이 노화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포 노화의 척도가 되는 염색체의 끝 부분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telomere)에 노화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로미어란, 세포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염색체의 양 끝 부분에 달려 있는 단백질의 사슬로서 염색체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것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수많은 세포 분열의 결과 텔로미어가 다 닳아서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 세포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암세포에서는 텔로메라제(telomerase)라는 효소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을 막는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한, 동물 실험 결과도 텔로메라제를 만드는 유전자를 없앤 경우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텔로미어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현재까지 수명에 관련된 몇 가지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들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직 논란이 적지 않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노화를 조절한다고 해도 생명 현상은 수많은 유전자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인데다가, 노화와 관련된 매커니즘을 완벽히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로장생은 인류의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정말 실현되었을 경우 과연 행복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최신 공상 과학물이나 옛 고전문학 작품에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불로불사(不老不死)는 도리어 비극으로 그리고 있다.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는 우리 옛말도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용’으로 번역되는 톨레랑스라는 말은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 ‘tolerare’에서 나왔다. 서구 사회에서 인종, 문화, 종교의 차이는 격렬한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톨레랑스다. 1572년 기독교 구교(가톨릭)와 신교(위그노)의 갈등으로 인해 파리에서만 3,000여 명의 신교도가 구교도에 의해 희생되었고, 이후에도 그 갈등과 피해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모아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것을, 즉 톨레랑스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종교간의 갈등이 진정되면서 톨레랑스를 외치는 목소리는 종교를 넘어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톨레랑스는 몇 가지 원리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원리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근본 정신은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부정이다. 우선 톨레랑스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편협함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필리프 사시에는 ‘톨레랑스는 자기중심주의의 포기’라고 얘기한다. 자기라는 중심을 버릴 때 또 다른 자아인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톨레랑스가 모든 차이와 다양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사시에는 톨레랑스가 정착하려면 ㉠ 차이의 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하는 유사성의 질서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르다는 것은 소중하지만 단순히 ‘차이’만을 존중할 경우 톨레랑스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마저 차이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톨레랑스 속에도 앵골레랑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앵골레랑스’는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타인의 행동이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반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 ‘톨레랑스 속에 담긴 앵골레랑스’는 이성적인 반대를 뜻한다. ‘도덕적인 의무인 앵골레랑스’와 ‘억압적인 앵골레랑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성’이다.

톨레랑스의 또다른 원리는 토론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비판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인간의 경험이란 한계가 있고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제각각이므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인과의 이성적인 토론은 내 견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상대방의 의견도 보완해 준다. 말과 설득이 아닌 다른 수단, 즉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진리일 수 없음을, 남을 설득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관용인 톨레랑스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를 닮았다. 한 손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을, 다른 손엔 불의를 응징하는 칼을 들고, 편견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가린 여신의 모습은 톨레랑스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톨레랑스는 토론과 설득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서는 사회,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이성과 배척되는 억압적인 앵골레랑스가 주도하는 사회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회윤리이다.

33.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노화를 줄이는 방법
- ②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
- ③ 노화에 대한 의학적 정
- ④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의 한계
- ⑤ 노화와 유전자의 관계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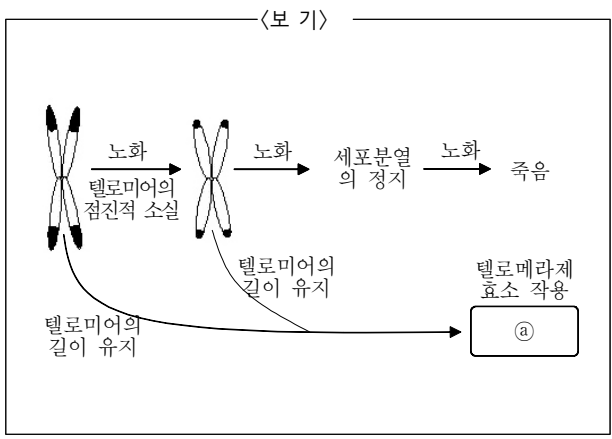
34. [A]의 과정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②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게 되면 이자는 늘어난다.
- ③ 짬뽕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체력은 저하된다.
- ④ 자동차가 오래 되면 엔진에 불순물이 쌓이게 되어 고장이 자주 난다.
- 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연료 소비량은 늘어난다.

35. 위 글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식사를 많이 하면 산소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겠군.
- ②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하겠군.
- ③ 산소는 인체의 생존과 죽음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약의 성격이 지녔군.
- ④ 동물의 노화 방지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군.
- ⑤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노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군.

36. [B]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암세포화
- ② 세포의 재생
- ③ 세포의 손상
- ④ 세포의 합성
- ⑤ 노화 유전자 생성

37.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톨레랑스의 변천 단계
- ② 톨레랑스의 원리와 의의
- ③ 톨레랑스의 교환과 한계
- ④ 톨레랑스의 탄생과 전파 과정
- ⑤ 톨레랑스와 앵골레랑스의 관계

38. ㉠의 의미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편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의견들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상호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만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상호간의 입장 차이 없이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⑤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내용에 대한 평가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편견의 산물이라며, 동성애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의 일부 사회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 ① 서구의 일부 사회는 동성애를 톨레랑스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 ②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도덕적인 앵플레랑스의 대상이겠구나.
- ③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억압적 앵플레랑스를 행사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네.
- ④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앵플레랑스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지.
- ⑤ 동성애가 톨레랑스의 대상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지.

40. ㉡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외국인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 ② 일부 유력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사회적 특권을 비판한다.
- ③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다.
- ④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에 저항한다.
- ⑤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회 제도에 저항한다.

41. 위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과 설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판단과 해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 ②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야.
- ③ 다양성이 인정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 톨레랑스는 금과옥조(金科玉條)라 할 만하군.
- ④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 지식인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군.
- ⑤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톨레랑스까지 용납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야.

1.⑤	2.①	3.③	4.②	5.⑤	6.①	7.①
8.⑤	9.②	10.⑤	11.②	12.⑤	13.⑤	14.④
15.④	16.②	17.②	18.③	19.①	20.⑤	21.⑤
22.②	23.②	24.④	25.④	26.①	27.②	28.⑤
29.④	30.⑤	31.②	32.②	33.③	34.④	35.④
36.①	37.②	38.③	39.④	40.④	41.④	

2017년 7월 인천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 5 1 3

01번

[정답 맞히기]

⑤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

→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나?’를 보면 감옥에 갇힌 영철의 일가친척 중 한 명이 분개하며 원망한 대상이 ‘영철’이 아닌 ‘조정’이다. 따라서,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유림은 아라나를 설득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 한 마리로 ~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여 허락하였다.’

② 영철은 조선군으로 출정하여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 아라나(阿羅那) 장군이였다.’를 보면 영철이 조선군으로 출정해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③ 영철은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림에게 세남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 “장군,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를 보면 영철이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림에게 세남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④ 영철이 청노새를 유림에게 팔지 않자 유림은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 ‘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였다.’를 보면 영철이 청노새를 유림에게 팔지 않자 유림이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02번

[정답 맞히기]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A]부분을 보면 아라나가 과거의 일을 하나 하나 짚으며 상대방인 영철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관련해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주공(主公),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족(漢族) 놈들이 한 짓이옵니다.”를 보면 영철이 ‘한족 놈들’에 자신의 죄를 돌리고 있다. 따라서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 [B]를 보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일들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와 [B]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 [A]를 보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아라나가 영철의 지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A]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다.

[B]는 영철이 자신의 죄를 묻는 아라나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B]와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A]에서 아라나가 자신이 과거에 영철에게 베푼 은혜를 언급하여 자신의 뜻, 즉 영철을 죽이려는 자신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A]의 아라나와 관련해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철이 자신의 죄를 묻는 아라나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기에, [B]와 관련해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번

[정답 맞히기]

③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나는 네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천리마 세 필을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도 원통하다.’와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를 통해, 아라나가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아라나는 조선의 사대부가 아닌 청나라 장수이기에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군.

→ 이야기 전반에 걸쳐진 전쟁과 관련된 영철의 이러한 고통이, 뛰어난 영웅이나 높은 집안의 양반이 겪는 고통이 아닌, 평범한 백성이 겪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이 드러난다.

- ② 나라를 위해 충군하느라 모든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값'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軍門)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를 보면 어려운 형편의 영철에게 세남초 값을 갚으라는 유림의 요구는 백성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충군하느라 모든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 값'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군.
-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하리오.'를 보면 전쟁터에서 고생한 것으로도 부족해 고향에 돌아와서도 영철이 전쟁 때의 일로 계속 고생을 하게 되었다.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충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충군(從軍)하면서 들인 노고(勞苦)와[노력 및 고생과] 세운 공(功)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보상조차 주는 일은 없고 도리어 이렇게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냐?"를 보면 영철이 충군하여 공을 세웠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2015년 7월 인천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정답: 2 5 1

04번

[정답 맞히기]

- ② 조웅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 하더라.'를 보면 조웅 모자가 송 태자와 사생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어 가슴 아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조웅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웅의 안위를 걱정했다.
-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를 보면 '이두병의 등극'과 '조웅의 생사'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왕 부인'의 이러한 걱정이 '이두병의 등극'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기에, '왕 부인'과 관련해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웅의 안위를 걱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를 보면 '이두병'이 '송 태자'를 대신해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를 보면 '송 태자'가 유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송 태자의 유배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두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이두병은 조웅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웅을 잡아들이게 했다.
- '황제가 그 글을 보니 ~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를 보면 이두병이 조웅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웅을 잡아들이게 하고 있다.

05번

[정답 맞히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 '관원들이 조웅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웅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를 보면 관원들이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원들'의 모습을 두고 '악이 선에 의해 축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작품에서 반역을 꾀한 사람인 '이두병'을 '악'으로 칭할 수 있고, 조웅은 이와 반대되는 '선'이다. 따라서, 이두병의 명을 따르는 관원들은 '선'이 아닌 '악'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이 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와 '문제 39번의 <보기>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를 보면 반역을 일으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이두병'과 관련해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웅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더니'에서 '원수를 갚는 일'은 부당하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악인으로서의 이두병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고, '문제 39번의 <보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를 보면 이두병에 맞서는 조웅의 모습이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웅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슬프구나 백성들이,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에서 '기다리는 시절'은 다른 아닌 '역적 이두병이 몰락하고 송나라가 본래의 혈통을 회복하게 되는 때', 즉 '악인이 몰락하고 본래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시절 노래'와 관련해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조옹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옹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조옹이 쓴 '경화문의 글'을 통해, 조옹이 악인인 이두병을 물리쳐 본래 송황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경화문의 글'과 관련해 "조옹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옹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문제 39번의 <보기>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06번

[정답 맞히기]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를 보면 새로운 황제 '이두병'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옹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옹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를 보면 이두병이 조옹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혹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조차 이두병이 모를 수 있기에, 자신의 생사는 '이두병의 황제 등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어머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 관련해,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옹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옹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전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 나는지라.'에서 이 때의 '근심'은 '송나라의 앞일에 대한 근심'일 것이다. 따라서 ㉢과 관련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옹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임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을 보면 황제의 자리는 아무나 차지하는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고사이기에, ㉣과 관련해,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옹을 어찌 잡으리오.'를 보면 역적 이두병에 동조한 신하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조옹을 결코 잡을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편집자의 시각에서 논평하고 있는 부분으로, ㉤의 '신하들'은 '이두병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아니라 '이두병에 동조하는 신하들'기 때문에 ㉤과 관련해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3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정답 : 1 5 2 5

07번

[정답 맞히기]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마지막 문단을 본다면 알 수 있다. 수사학으로 역사 서술을 했던 시기에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은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가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② 헤로도토스는 행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로도토스는 신화적 세계관과는 다르게 역사 서술을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다. 이는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이끌게 되었다.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histor'는 원래 '목격자'나 '증인'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 이후로 역사를 의미할 때, '증인'이라는 뜻과 관련된 역사 보다는 '탐구'라는 의미가 더 깊어졌다.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보였다. 즉,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이는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삶의 학교'라는 측면에서 역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행역사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는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08번

<보기>에서 나타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 문제를 풀도록 하자.

[정답 맞히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 (가)는 수사학적 서술 방식으로 쓰여진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 (다)는 역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삶의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설득력을 중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는 수사학적 역사 방법이 더 어울린다. 하지만, (가)와 (다)는 수사학적인 것보다 교훈성을 띤 역사 서술 방법에 지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는 둘 다 역사 서술에서 설득력 보다 교훈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가)에서 폴리비오스는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필라르코스의 역사 서술을 비판하고 있다.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사학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나)에서 루키아노스는 역사 서술을 할 때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다)에서 투키디데스는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사는 '삶의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 사관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책을 유용하게 여길거라는 점에서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 또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군.
→ (가)는 수사학적 서술을 비판했고, (나)는 역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둘 다 수사학적 서술 보다는 역사를 모두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번

㉠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답 맞히기]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의 입장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강조했다. 이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은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사용하지 않고 신화적 세계관에만 입각했다'는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선지는 '객관적 서술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라고 적혀있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역사 서술을 강조했다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할 수 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실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구전되는 서사시를 통해 '일리아스'를 작성한 점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입장에서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은 전쟁이 제우스 신의 뜻에 따른다고 보았다. 이는 ㉠의 객관적 서술태도에 반하는 것이다. 인과가 없이 단지 제우스 신의 뜻에 따른다는 점은 ㉠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할 것이다.

10번

[정답 맞히기]

- ⑤ 남다르다
→ ㉡는 '앞세우다'를 관형사형으로 만든 것이다. '앞세우다'에서 '앞'은 부사어고 '세우다'는 서술어이므로 '앞세우다'는 부사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번 선지의 '남다르다'는 '남'이라는 부사어와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결합하여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된다. 따라서 ㉤번 선지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명들다
→ '명들다'는 '명이 들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주어+서술어' 형태의 합성어다.
- ② 빛내다
→ '빛내다'는 '빛을 내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목적어+서술어' 형태의 합성어다.
- ③ 힘쓰다
→ '힘쓰다'는 '힘을 쓰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목적어+서술어' 형태의 합성어다.
- ④ 그늘지다
→ '그늘지다'는 '그늘이 지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주어+서술어' 형태의 합성어다.

정답 : 2 5 5 4

11번

[정답 맞히기]

②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 위 제시문은 연주라는 키워드가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면서 어떻게 의미가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 ③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서로 대비되는 견해보단, 시대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동원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예찬하고 있다.
→ 필자가 사례를 동원하여 그 시대의 연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주의 효용성을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 ⑤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12번

[정답 맞히기]

⑤ 작곡자가 의도한 객관적 감정의 전달
→ ㉠은 18세기의 연주를 지시하고 있다. 18세기의 연주는 객관적인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의미됐다. 이를 통해 ㉠은 지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연주자의 생각과 주관
→ 연주할 때 연주자의 생각과 주관은 음악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난 20세기에 들어서 강조되었다.
- ② 작곡자와 연주자의 분리
→ 작곡자와 연주자의 분리는 20세기 들어서 나타났다. 작곡가와 연주자가 분리됨으로써 연주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독자성을 구현해야 했다.
- ③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 19세기에서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이 강조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 작품 자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는 작품미학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④ 형식을 강조한 음악의 아름다움
→ 19세기에 들어서 음악을 연주할 때 형식을 강조했다. 19세기의 작곡자들은 감정보단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13번

[정답 맞히기]

⑤ 빠르기와 섬여림이 본래 악곡과 달라 베토벤의 음악에서 연주자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어.
→ ㉠은 연주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작품이 새롭게 지니게 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지에서 연주자의 개성을 본래 악곡과 다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연주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베토벤의 음악이 새롭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음악에서 베토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 작품의 작곡자의 감정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전달하려는 시도는 18세기에서 있었다. 하지만 ㉠은 20세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② <월광> 소나타를 반복해서 들으니 이 곡이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
→ ㉡번 선지는 <월광>이라는 작품의 형식을 통해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음악의 특징임을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악곡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 주제 선율을 파악해서 악곡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이 지닌 본래 내용이 관객에게 충실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는 18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 ④ 제목 '월광'처럼 음악을 듣는 동안 달빛 어린 잔잔한 세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 제목 '월광'을 듣는 동안 잔잔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이는 작곡자가 의도한 것을 감상자가 느꼈으므로, 18세기의 음악의 특징이 구현됐음을 알 수 있다.

14번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직접 찾아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정답 맞히기]

④ ㉠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은 '독점'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향유'는 '누리어 가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 : 가리켜 보임.
→ 지시(指示) : 1. 가리켜 보임 2. 일러서 시킴.
- ② ㉢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추구(追求)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③ ㉣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감상(鑑賞)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⑤ ㉤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 종사(從事) : 1.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2.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3. 어떤 사람을 좇아 섬김

정답 : 4 2 2 3

15번

[정답 맞히기]

-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익에 관련한 내용은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점이라고 나타났기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적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타나있다.
-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정부와 민간 업체로 분류했고, 민간 업체를 또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나타나있다.
-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을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라는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16번

[정답 맞히기]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공공 서비스의 특성인 '배제성'과 '경합성'을 각각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의 특성인 '배제성'과 '경합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효용이 비유적으로 설명돼있지 않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은 3문단에 나와 있지만, 1문단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지 않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나타나있지 않으며, 시간 순서 역시 기술되어 있지 않다.

17번

밑줄 친 부분과 그에 대한 이유나 전제 등을 물어본다면 주변 문장에 집중하도록 하자

[정답 맞히기]

-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에 대한 이유가 2가지로 ㉠앞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과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가 ②번 선지를 적절히 추론한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민간 업체가 아닌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에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진술이다.
-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민간 위탁이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제시문에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위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 방식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가지 방식이 더 존재한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필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었다는 부분은 제시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18번

[정답 맞히기]

- ③ ㉠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감소될 뿐이다.
→ '경감(輕減)되다'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③번 선지는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를 통해 '손해와 이익을 아우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손익'과 '경감'은 의미상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열람(閱覽)'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② ㉢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충당(充當)'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④ ㉔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개선(改善)'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의 뜻을 지니고 있다.
- ⑤ ㉕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 '저해(沮害)하다'는 '막아서 못하도록 해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정답 : 5 3 3

19번

[정답 맞히기]

- ⑤ '옹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 라는 '옹주'의 말을 통해 '옹주'가 혼인 이전에 '지경'과 '최 씨' 사이를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옹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 '~연성 옹주 말기시니, 신이 과연 옹주의 탓이 아니온 줄 아오되,' 라는 '지경'의 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 '네 아년즉~ 아버이를 휘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임금'이 '지경'을 책망하는 말에서 그가 옹주를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윤 공'은 '지경'이 옹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지경'이 '최 공'을 만나 자신의 심정을 말한 이후로 주야로 '최 씨'를 찾아갔다. '윤 공'이 알고 불러 대책하고 옹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은 '날마다 '최 씨'를 찾아갔다.
- ④ '최 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 지문 첫머리에 '최 공'이 애련하여 '지경'의 등을 쓰다듬는 것을 통해 그가 '지경'을 안쓰럽게 여김을 알 수 있다.

20번

[정답 맞히기]

- ③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처첩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지경'이 말하는 '간악한 후궁'은 '옹주'의 어머니인 '귀인 박 씨'를 칭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귀인 박 씨'에 대한 '지경'의 부정적인 태도는 알 수 있지만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윽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박 귀인'은 연성 옹주의 어머니로, <보기>를 통해 '박 귀인'과 '복성군'이 실제 인물인 중종 때의 후궁 '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모델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지경'이 이들 외척 세력이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그윽한 흥계'를 지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습에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급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지경'은 자신을 회유하는 '최 공'의 말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고 말한다. 또한 '임금' 앞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임금'은 이에 '지경'을 바른 말을 잘하던 옛 중국의 정치가인 '급암'을 비유하여 그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옹주의 말을 듣고 '최 씨'를 없이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임금에게 말하는 '귀인'은 '지경'이 뜻을 이루기 위해 맞서야 하는 장애물이다.

- ⑤ '최 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 임금 앞에서도 '최 씨'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와의 '신의'를 지키겠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요시 했던 당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21번

[정답 맞히기]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옹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 '옹주는 '태부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요'라며 자신을 천대하고 '최 씨'를 챙기는 '지경'을 책망하고 있다. 이에 '지경'은 '내 할 말을 옹주 하시는도다'라며 자신은 이미 조강지처인 '최 씨'가 있기에 '옹주'와 화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옹주는 '지경'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상대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경'이다. '지경'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로다.'라며 '옹주'가 최 씨를 불러들여 함께 화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옹주는 '지경'이 신분의 차이를 들어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 '옹주는 '지경'이 자신을 천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지경'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지경'은 자신이 부귀를 탐해 '최 씨'를 버리고 '옹주'와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 ⑤ '지경'은 '옹주'가 '옹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경'이 '옹주'를 위하는 마음은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 2 2 4 4

22번

[정답 맞히기]

② 번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가)의 '두어라 세간 소식 나난 몰라 하노라', 와 (나)의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이목에서 떨쳐 버릴 수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가)의 <제6곡>마지막 행의 '연화 수삼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에서 화자가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에서도 화자가 계상에서의 경관을 묘사하고 이것이 '나의 흥취를 북돋아 준다.'라고 말하는 부분, '여기서야말로 번거로운 일들을 말끔히 잊고 흥겹게 지낼 만하다.'라는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 ③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가), (나)의 화자 모두 현실을 절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
- ④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가)의 <제5곡>에서 화자는 편편 고봉, 외로운 봉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 ⑤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실을 무릉으로 여기며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만물은 '한곳에 집착하지 않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곳인 냇물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자체에 만족한다.

23번

[정답 맞히기]

② <제2곡>에서 '천심 절벽'은 '백구'를 벗으로 삼는 '어조 생애'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 '천심 절벽'은 화자가 '어조 생애'를 즐기는 공간의 배경으로 장애물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제1곡>에서 '부귀'를 구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망기'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망기'는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을 의미하는 말로 속세의 욕망인 '부귀'를 구하지 않고 '빈천', 즉 가난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망기'를 지향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 ③ <제4곡>에서 '낙화 광풍'에 의해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우는 '두견'의 처지는 '설워 하'는 화자의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낙화 광풍'은 꽃을 떨어뜨리는 미친 바람으로 정치적으로 험난한 현실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의지할 곳 없는 '두견'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제5곡>에서 '저 가막이'가 '쫓'는 것과 '이 가막이'가 '쫓'는 것은 '편편 고봉'이 놓인 부정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 '저 가막이'가 '쫓'는 것과 '이 가막이'가 '쫓'는 것은 당쟁이 심한 세태를 나타내고, '편편 고봉', 외로운 봉황은 이 때문에 의지할 곳 없는 임금을 상징한다. 화자는 '어엿불사'라며 임금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⑤ <제6곡>에서 '수삼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무릉인가 하노라'로 드러난다.
 → '무릉'은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사는 '수삼 어촌'을 '무릉'으로 칭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24번

[정답 맞히기]

- ④ '냇물' 속에서 '때 지어' 놓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즐거움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보기>와 '무릇 만물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문단에서 글쓴이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물고기들'이 '때 지어' 제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외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사심 없이 물(物)이 오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물고기들을 보며 이를 '즐길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글쓴이가 지향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냇물'은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냇물'은 언제나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중요시하는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 ② '계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계상'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다.
 → 글쓴이는 '계상'에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흥취도 느끼고 있다. 이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모습에서 그가 이곳을 편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여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한 평상'에서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계상'이 글쓴이에게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 공간적으로는 '한 평상'일 뿐이지만 정신만큼은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가 계상에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잘 변화'해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지문에서 화자는 쉬지 않고 흐르는, 즉,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냇물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찾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이런 즐거움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에서 온다고 말하고 부연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서술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맞히기]

- ④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은 자적하는 삶 속에서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보리밥 파 생채'는 화자가 먹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며 이는 화자의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 '자적'은 '아무런 속박 없이 즐겁'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계상에서 유유자적하고 있고, '탁주 한 사발'을 통해 막힌 가슴도 트이고, 원기도 솟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글쓴이의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 ㉡은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 ㉠과 ㉡은 모두 화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소재이다. 자기 성찰은 두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② ㉠, ㉡은 모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는 소재이다.
→ 두 글 모두에서 각각의 글쓴이는 자연을 즐기고 있지만, ㉠, ㉡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 ㉠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과 안빈낙도하는 그의 태도를 드러내며 ㉡은 글쓴이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소재이다.
- ③ ㉠, ㉡은 모두 강호 공간에서의 자기 절제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은 화자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지만 이는 절제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이 때문에 화자가 갈등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은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 (가)에서 화자가 한탄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도 화자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나)의 글쓴이 모두 자신의 처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정답 : 1 2 5

[정답 맞히기]

- ① 화자의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가)의 화자는 화물차에 달린 '초록색 램프'를 통해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매 맞고 혼자 울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심청전'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가)에서는 2,3,4연에서 명사로 끝맺는 시행이 여러 번 등장하고 여기에서 여운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명사로 끝맺는 시행은 2연 첫 행인데 이는 뒤로 이어지는 시행의 주어일 뿐 여운과는 상관이 없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 (나)에서는 '꼬들꼬들'과 '비칠비칠'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지만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찾을 수 없다.

*음성 상징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괄하는 개념

- ④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고향'과 '고향 사람들'이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뿐, 이것이 점층적으로 확장되어 의미를 강조하지 않는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공간은 화자의 고향과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도시 두 곳이 등장하는데 이는 화자의 여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연상에 따른 결과이다. (나) 화자의 현재 위치에서 어린 날의 뒤을 안, 심청이네 집 등으로의 공간 변화도 여정이 아닌 연상의 결과이다.

[정답 맞히기]

- ② '한 줄기 황망한 기적'과 '낮은 비오름'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한 줄기 황망한 기적'소리는 도시의 기차가 내는 것으로 이는 도시에서 느끼는 쓸쓸함으로 이어진다. '낮은 비오름'은 화자가 바람 소리를 비유한 것으로 고향에 대한 연민을 환기하는 것은 '낮은 비오름'이 아니라 '바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호젓한', '서러운'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노출되고 있다.
→ 고향의 산, 나무, 고향 마을 자체가 호젓하다, 쓸쓸하고 외롭다는 표현과 '서러운 고향'이라는 표현에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 ③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에는 '눈물지'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비애감이 집약되어 있다.
→ '도시의 옥상'에서 고향을 떠올리고는 눈물짓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의 쓸쓸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 ④ '언제 꺼질지 모르는 /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통해 '고향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조그만 생활'과 '해마다 가난해가는'이라는 표현에서 '고향 사람들'의 처지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⑤ '저무는 도시의 옥상'은 화자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화자는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일몰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도시라는 공간적 배경은 화자의 슬픔과 쓸쓸함을 더욱 강조하여 분위기를 심화시킨다.

[정답 맞히기]

- ⑤ 외적 소재를 통해 내적 소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고통마저도 '햇살'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외면해 온 화자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발가벗은 햇살'에 투영되어 있군.
→ '햇살'은 희망을 상징하는데 고통마저 희망으로 변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발가벗은 햇살'은 '햇살'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순수와 희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화자의 후회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어른이 된 화자가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군.
→ 화자는 현재 어른으로 '흥취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따라서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 ②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 속에 '초록별의 멍든 날갯죽지'와 '눈물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 할 수 있군.

→ '대숲바람 소리'는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내적 소재로 볼 수 있다. 이 속에 '멍든' 날갯죽지와 어린 날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는 어린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아닌 아픔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다.

③ '심청'이 '심봉사'를 혼자 남겨 두고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의 장면이 외적 소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 '심청전'은 잘 알려진 고전이기에 때문에 외적 소재이다. 가난한 심청이가 봉사 아버지를 위해 빌어먹으러 나가있는 장면과 화자의 어린 시절이 연결되어 화자의 어린 시절 또한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외적 소재와 내적 소재가 접목되면서,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 다시 눈트'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심청이네 집 '개다리 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쏠이던 햇살은 '심청'이가 지녔던 희망을 상징한다. 이것이 '다시 눈트고' 있는 것은 화자도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 4 5 2 2

29번

이 글에서는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지문을 살펴보면 색깔이나 모습, 행동을 통한 시각적 방법이나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 냄새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맞히기]

④ 보호색을 이용하는 방법
→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보호색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행동을 이용하는 방법
→ 세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까치와 가까운 새인 ㉠유럽산 어치의 사례를 들어 동물이 행동을 통해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냄새를 이용하는 방법
→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냄새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례로 둥근꼬리 여우원숭이가 제시되어 있다.

③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
→ 네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경보음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동물로 ㉡북미산 얼룩다람쥐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⑤ 모습이나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모습이나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로는, 열대의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시칠리드이다. 시칠리드는 귀처럼 보이는 부분의 점의 유무에 따라 의사를 표현한다.

30번

[정답 맞히기]

⑤ 동물의 의사 표현 수단이 갖는 장단점을 대비하며 서술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기 쉽군.

→ 동물의 의사 표현 수단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 표현 방법의 장단점을 대조하며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동물의 의사를 번역할 수 있는 기계를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일본의 한 완구 회사가 개발한 '바우링걸'의 기계를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후 동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② 동물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도움이 되었어.

→ 첫 번째 문단에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동물행동학 학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그것을 동물의 의사 표현으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다. 후에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반복 관찰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선지 ②는 적절하다.

③ 동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하기가 쉽군.

→ 위 글에서는 ㉠남미에 서식하는 배짱이부터 소리를 이용하여 의사표현하는 ㉡가목리모양나방 애벌레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한 선지이다.

④ 동물행동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 마지막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초라하지만 동물행동학의 연구 성과가 폭넓게 쌓이면 완벽한 번역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1번

[정답 맞히기]

②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선, 손을 뺐을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보는 방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한 경우, 일단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며, 그 의미는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반복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다면 <보기>의 사례에 대한 동물학자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가 된다. 일회적인 행위를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표현한 것인지 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의사 표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해야 적절한 답변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상대방에게 물러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지요.

→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인, '동일한 상황'과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③ 의사 표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무슨 뜻인지는 좀더 연구해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인, '동일한 상황'과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고 한 선지 ②는 옳지 않다.

④ 의사 표현은 아닐 겁니다. 확실한 건 그 곤충의 신체 구조를 분석해 본 후에야 알 수 있지만요.

→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인, '동일한 상황'과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의사 표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④문장의 앞부분은 적절하지만, 곤충의 신체 구조를 분석해 본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근거를 위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의사 표현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들 중에는 그런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없거든요.

→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인, '동일한 상황'과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⑤문장의 앞부분은 적절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들 중에는 **그런 방법(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지문의 두 번째 문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32번

[정답 맞히기]

② ㉠

→ 지문에 근거하면, 시칠리드의 신체 일부에 점이 생기는 것은 기분이 안 좋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을 풀어 볼까'라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

→ 남미의 열대 정글에 서식하는 벵가이는 가만히 서서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에게 당당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표현한다. 따라서 ㉡의 의사 표현과 의미는 적절하게 대응한다.

③ ㉢

→ 유럽산 어치는 머리에 있는 깃털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 마음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기분이 아주 좋지 않거나 공격을 하려 할 때 머리털을 가장 높이 세우므로 ㉢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과 의미가 적절하게 대응한다.

④ ㉣

→ 북미산 얼룩다람쥐는 맹금류를 발견하면 날카로운 소리로 경보음을 내어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따라서 ㉣상황에서의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상황과 의미는 적절하게 대응한다.

⑤ ㉤

→ 갈고리모양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가 자신의 구역에 침입하면 나뭇잎을 굵어 진동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따라서 ㉤의 상황과 그의 의미는 적절하게 대응한다.

2005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 3 4 4 1

33번

[정답 맞히기]

③ 노화에 대한 의학적 정의

→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선지이다. 지문에 노화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노화를 줄이는 방법

→ 네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활성산소의 축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체내 산소 소모량을 줄이면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②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

→ 첫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노화의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크게 '활성산소의 축적'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의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된다.

④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의 한계

→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의 존재'에서 특정 유전자가 노화를 조절한다고 해도 생명 현상은 수많은 유전자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인데다가, 노화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완벽히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선지이다.

⑤ 노화와 유전자의 관계 연구 동향

→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세포 노화의 척도가 되는 염색체의 끝 부분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에 노화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암세포에서는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동물 실험 결과도 텔로메라제를 만드는 유전자를 없앤 경우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텔로미어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⑤노화와 유전자의 관계 연구 동향은 적절한 선지이다.

34번

A의 원리는 활성 산소의 축적으로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유해한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제품이 소모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성질을 말한다.

[정답 맞히기]

- ④ 자동차가 오래 되면 엔진에 불순물이 쌓이게 되어 고장이 자주 난다.
→ 불순물이 쌓이는 것이 유해한 물질의 축적이며,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제품이 마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가장 유사한 사례의 선지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므로, 유해한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제품이 닳아 없어지는 특성은 아니다.
- ②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게 되면 이자는 늘어난다.
→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게 되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유해한 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제품이 소모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성질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③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체력은 저하된다.
→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유해한 물질의 축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연료 소비량은 늘어난다.
→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연료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유해한 물질의 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료 소비량과 유해한 물질의 축적에 관한 상관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 소비량의 증가는 소모, 마모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35번

[정답 맞히기]

- ④ 동물의 노화 방지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군.
→ 동물의 노화방지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글쓴이는 '의문이다'라고 서술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선지 ④는 동물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해야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므로 필자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부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식사를 많이 하면 산소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겠군.
→ [A]에서 선지 ①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활성산소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한 후 영양분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체내 세포나 DNA에 손상을 입히고 변이를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판단이다.

- ②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하겠군.
→ [B]에서 선지 ②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염색체의 양 끝 부분에 달려 있어 염색체를 보호하는 단백질의 사슬이다. 수많은 세포 분열의 결과 텔로미어가 다 닳아서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 세포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산소는 인체의 생존과 죽음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약의 성격을 지녔군.
→ 인체의 생존에 산소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A]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활성산소는 체내 세포나 DNA에 손상을 입히고 변이를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산소는 필요약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⑤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노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군.
→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세포 조직 등을 완벽히 복구할 수 없기에, 노화의 정복이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 ⑤의 견해처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구할 수 있으면 노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6번

[정답 맞히기]

- ① 암세포화
→ 정상 세포는 텔로미어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결국 세포가 정지된다. 하지만 암세포는 텔로머라제 효소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여 죽지 않는 세포가 된다. 그러므로 답은 ①이다.

2005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 2 3 4 4 4

37번

[정답 맞히기]

- ② 폴레랑스의 원리와 의의
→ 이 글의 핵심 내용은 폴레랑스가 '자기중심주의의 포기', '비이성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토론' 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폴레랑스'는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은 '폴레랑스의 원리와 의의'인 선지 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폴레랑스의 변천 단계
→ 폴레랑스의 변천 단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폴레랑스의 교훈과 한계
→ 폴레랑스의 교훈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퓌레랑스의 탄생과 전파 과정

→ 퓌레랑스의 탄생을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퓌레랑스와 앵폴레랑스의 관계

→ 퓌레랑스와 앵폴레랑스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38번

[정답 맞히기]

③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의 전후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추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퓌레랑스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존을 추구할 때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 ③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보편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의견들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편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의견들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은**, '차이의 질서'와 '공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상호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만을 지향해야 한다.

→ 상호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만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차이의 질서'와 '공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호간의 입장 차이 없이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상호간의 입장 차이 없이**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차이의 질서'와 '공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⑤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

→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퓌레랑스'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이다.

39번

[정답 맞히기]

④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앵폴레랑스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지.

→ 도덕적 앵폴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앵폴레랑스의 속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서구의 일부 사회는 동성애를 퓌레랑스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 <보기>에 따르면 서구의 일부 사회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구의 일부 사회는 동성애를 퓌레랑스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도덕적인 앵폴레랑스의 대상이겠구나.

→ 도덕적 앵폴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도덕적인 앵폴레랑스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억압적 앵폴레랑스를 행사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네.

→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억압적 앵폴레랑스를 행사한다고 여길 수 있다.

⑤ 동성애가 퓌레랑스의 대상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지.

→ 동성애가 퓌레랑스의 대상이라면, 생각의 편협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40번

[정답 맞히기]

④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에 저항한다.

→ 퓌레랑스 속에 담긴 앵폴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선지 ④는 이러한 내용과는 무관하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 가치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외국인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 퓌레랑스 속에 담긴 앵폴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므로 ㉠의 대상에 해당된다.

- ② 일부 유력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사회적 특권을 비판한다.
 → 퓌레랑스 속에 담긴 앵플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일부 계층이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사회적 특권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므로 ㉠의 대상에 해당된다.
- ③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다.
 → 퓌레랑스 속에 담긴 앵플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므로 ㉠의 대상에 해당된다.
- ⑤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회 제도에 저항한다.
 → 퓌레랑스 속에 담긴 앵플레랑스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므로 ㉠의 대상에 해당된다.

41번

[정답 맞히기]

- ④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 지식인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타산 지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군.
 →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구인의 노력’은 못나고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타산지석’이라는 한자성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귀감(龜鑑: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오답 피하기]

- ① 아전인수 : 자기(自己)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자기(自己)의 이익(利益)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行動)함
- ② 역지사지 : 처지(處地)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相對方)의 처지(處地)에서 생각해봄
- ③ 금과옥조 : 「金玉(金玉)과 같은 법률(法律)」이라는 뜻으로, 소중(所重)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規則)이나 교훈(教訓)
- ⑤ 불문가지 :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음

*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모르는 단어와 사자성어는, 단어장을 찾아가며 학습합시다!